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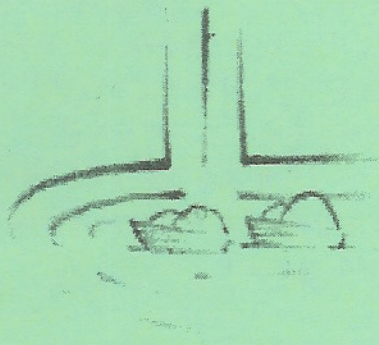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5주일  
 제27권 10호 (다해) 2007·2·4

## [묵상]



### 파도

우리 동네 솔숲 아래  
 출렁이는 바다를  
 하늘이 내려와 껴안으니  
 짹짹 깨어나는 물비늘로  
 고래도 새우도 모여와서  
 푸른 목청으로 노래합니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 주간 행사동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3단계)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 성서반 예비자 교리반(2월14일 개강)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이야기 성서반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영어권 Bible Study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10:30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미사	(연)박숙진 안나, 이계숙 안나 (생)조지가보라, 김풍길 바오로 가정, 성실미아 가정 엄도로테아 가정
주일 학생미사	(생)임민우 아우구스티노, 임은영 올리비아, & 민선 올리안나
주일 낮 미사	(연)지정남 모니카, 김피터 베드로, 이송림 요셉, 테니스웨이버 최복덕 마리아, 김인석 바오로,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생)강현주 로사, 권진영 피데스, 박원영 요셉, 이종민 요셉 김서연 아가다, 임종택 베르나르도, 김순희 모니카 홍주희 안나, 이조원 베드로 가정, 박해경 레나타 & 진수 스테파노 가정, 박재철 요한과 안홍순 로사 가정,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6,1-2나.3-8
화답송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를 당신께 노래 하오리다. <전례성가 78, 연중 제5주일 C해> ◎내마음 다하여 야훼님 기리오리다. 내입의 말씀을 들어주셨기에,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성전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리다.◎ ◎어지심과 진실하심 우리르며, 당신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당신이름과 언약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음이오이다.◎ ◎당신 입의 말씀을 듣자올 적에, 온 세상 임금 들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도를 노래하며 이르기를 야훼의 영광이 정녕 크시다 하리이다.◎ ◎당신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여 주시나이다.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다.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
제 2독서	1코린토서 15,1-1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
복음	루카 5,1-11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주님께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도다.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 ~ 58	33 ~ 42
입당	211	205
봉헌	258	269, 270
성체	384	292
파견	351	234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제3장 다른 성사와 준성사

성사의 본질

59.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한다. 성사는 참으로 은총을 가져다 주며, 그 집전은 신자들이 그 은총을 알차게 받고 하느님을 바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매우 잘 준비시켜 준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사의 표징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찌우도록 제정된 이 성사들을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준성사

60. 그 밖에 어머니인 교회는 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된다.

61.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는 잘 준비된 신자들에게 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 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되게 한다. 이 신비에서 모든 성사와 준성사가 그 효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물을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인간 성화를 이루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어있다.

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

62.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예식에 그 본질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끼여들어 왔고, 또한 실제로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에, 거룩한 공의회는 그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언어

63. 드물지 않게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백성에게 모국어의 사용이 매우 유익할 수 있으므로, 다음 규범에 따라 여기에 더욱 폭넓은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가.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제36항의 규범대로 모국어 사용될 수 있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 사람 낚는 그물과 황금돼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랫말에 마음이 머무는 것은 제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코 사람만큼 귀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 나고 돈 낚지 돈 나고 사람 낚나!' 고 흥얼거리는 것도 제아무리 귀하고 대단한 것이 돈이고 출세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까짓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낙오자의 한심한 자기 위안라고 비웃겠지만 존엄한 인간의 노동은 절대로 탐욕스러운 자본의 도구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황금돼지가 마구 돌아다니는 것은 재물의 축적에 대한 갈망과 경제적 쪼들림의 안다까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대학 입학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출세에 대한 욕망과 사회적 불평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혼 남녀가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에서 재물소유 정도와 직업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시대의 씩씩한 단면입니다. 만일 이 모습이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실체이며 본질이라면 우리는 '황금만능주의'·'배금주의'·'물질주의'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생활도, 인생관과 세계관도, 인간관계와 사회도 모두 '자본'·'돈'·'경제'라는 그물망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옥죄는 그물망을 걷어내고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물을 던지는 일은 하나님 은총과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을 꽃보다 돈보다 출세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그물을 던질 것

인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오늘도 묻습니다. 누가 나설 것인지 서로를 결눈질하는 세상에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 6,8) 하신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 교회와 신앙인을 재촉합니다. 만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교회는 걸보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망설임에 섭섭함을 갖는다면 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오늘의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누추한 달동네에서 힘없는 부모를 두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맥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조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차라리 무모함이며, 그 무모함에 두려웠을 것입니다(루카 5,8-1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칠삭등이 같은... 가장 보잘것없는" "지금의 나"(1코린 15,8-10)와 함께 세상에 구원의 그물을 던지자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가늠하는 순간입니다. 두렵지만 황금돼지를 놓고 하나님의 그물을 손에 쥘시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신수동성당 주임

#### 이번주 전례 봉사자

####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진향 (아네스)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모은기 (다두)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최태훈 (아우그스틴)	김교복 (레오)	전배형 (베드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박진숙 (엘리사벳)	제2독서자	봉효운 (솔리나)	변혜경 (올리아나)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하 / 칼 2, 4반	제물봉헌자			토 서 1,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 헌금 (매월 첫째 주일)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목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목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 지난 주간 합계 : 3,226 ☞ 총 합계 : 82,973

◆ 본당 신부님 북미주 사제 협의회 참석으로 이번 주 2월7(수), 2월8일(목), & 2월9(금) 평일 미사 없습니다.

- ◆ 주일학교 소식
  - 오늘 주일 2학기 개학
  - 2학기 등록비 : 1인당 \$50 (둘째 \$30, 셋째 \$20)
  - 자모회비 \$20 (가족당)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주제 : Totus pro Deus (All for God)
  - 날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65 (본당 보조 \$15, 개인 \$150)
  - 신청마감 : 오늘 주일까지
  - \*신청자는 오늘 주일까지 반드시 \$25 Deposit & Registration packet을 제출해야 합니다.
- ◆ 한국학교 소식
  - 오늘 주일 2학기 개학
  - 2학기 등록비 : 1인당 \$150 (둘째 \$140, 셋째 \$130)

◆ 청년 성서공부 모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김으로써, 하나님께 한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성서공부 할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 2월11일 주일까지  
 ● 과목 : 창세기 반  
 ● 문의 : 강정현(시몬) 310-951-8364  
 \*첫 모임시간에 그룹공부 모임시간을 상의하여 조정합니다.

-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단
  -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순례 비용(\$790)을 오늘 주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지참)
  - 납부 : 오전8시30분~오후2시, 사무실

◆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젊은이 기도모임  
 ● 2월 10일(토), 20:30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성체조배실

◆ 수요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월14일(수), 오후8시, 환영식, 강당  
 ● 새 교리반에 많은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제 57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  
 ● 2월9일(금)~11일(주일)  
 ● 문의 : 오영섭 스테파노 (310)922-1502

◆ 양업회 주최 “이민 생활, 세법 세미나”  
 ● 2월11일(주일), 오후1시, 강당  
 ● Panelist : 본당 소속 CPA 이재정, 신대식, 채데이빗  
 ● 세금보고 시기를 맞아 세법상식과 변경된 세법에 관한 강의와 개인 상담시간을 마련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날 합동 위령미사  
 2월 18일(주일)은 한국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선조들과 친척, 은인들을 기리는 ‘설날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예물은 2월16일(금)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성지가지 회수  
 ● 2월 21일(수)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월 18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속경	곽효식	구자운	권미자	김대우	김미경	성전헌금	강속경	곽효식	구자운	권미자	김대우	김미경
	김상근	김양금	김우용	김유미	김재연	김태호		김상근	김양금	김우용	김재연	김태호	김풍길
	김풍길	박기돈	박동수	박진수	서성용	신순철		박기돈	박동수	박진수	서성용	신순철	오세원
	오세원	오일순	오호순	유영균	윤석봉	윤재림		오일순	오호순	유영균	윤재림	이기성	이병우
	이기성	이병우	이인석	이재용	이재정	이정희		이인석	이재용	이재정	이정희	이종한	장영진
	이종한	임귀자	임연조	장영진	장정진	정동호		장정진	정동호	차병용	채양석	최귀환	최미열
	차병용	채양석	최귀환	최미열	최상만	최수복		최상만	최수복	최진수	한금순	허정애	현석주
	최진수	한금순	허정애	현석주	홍기주	황인중		홍기주	황인중	황지영	익명	박제이콕	
	황지영	익명	박제이콕		박현주 S.								
	합계 : \$6,230							합계 : \$5,441					
미사헌금	\$2,489												

# 공지사항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2월 4일 : 소공동체 (김밥 \$3)
- 2월 11일 : P.V. 2반 (육계장 \$3)

\*\*\*\*\*  
 ☆☆☆ 환영합니다. ☆☆☆  
 \*\*\*\*\*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양영관 시메온 & 은순 유리안나(토렌스 동 1반)

## 남가주 소식

◆ **이민 100주년 기념 성모자 부조상 건립기금 모금 골프대회**

- 2월7일(수), 오전10시30분, Shotgun
- Westridge Golf Course (La Habra)
- 회비 : 1인당 \$100 (점심, 저녁 식사 포함)
- 신청, Sponsor, Donation : 각 본당 골프회장님
- 문의 : Charlie Kim (213)280-2221  
 최기남(야고보) (310)569-3940

◆ **청소년 직업갯기 프로그램**

- 소개 : 취업준비-이력서쓰기, 인터뷰 요령, 상담 & 멘토링
- 대상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있는 18세~34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장있는 청소년
- 장소 : Asian-American Job Training Center  
 재미한인 직업 교육 센터  
 680 Wilshire Pl. #414, L.A., CA 90005
- 연락처 : Jenny Shin (213)480-1282

## 사랑을 구합니다.

❖ **Student Aid 구함** ❖

- 분야 : P. V. School District Student Aid 2명
- 자격 : Bilingual (English/Korean) Reading & Writing
- Interview 장소 : P.V. School District/Human Resource  
 3801 Via La Selva, P.V.E., CA 90274  
 Application 지참
- 문의 : 김마리나 (310)548-8427, (310)987-1462

❖ **Bon Bon Island** ❖

- 분야 : Candy Store, Part-time Cashier, P. V. Mall
- 자격 : 영어하실 수 있는 분
- 연락처 : (310)541-3906

##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 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	오후 1시, 각 교실
---------	-------------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2/10(토) 오후7시
	3	정정숙 레아 791-5696	정정숙 레아 791-5696 2/23(금) 오후 7시30분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형재반 2/7(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2/21(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마틴 533-1435 2/10(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김유숙 헬레나 214-0069 2/17(토) 오후5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999-5677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2/9(금) 오후7시30분, 유아실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찬양)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4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시스코 326-6587	조소영 수산나 891-0314 2/11(주일) 오후5시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2/10(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4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544-6290	송재훈 필립보 377-4219 2/10(토) 오후7시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배수정 클라라 377-2228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2/9(금) 오후7시30분
	4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5		

## 사랑을 실천한 피에르 신부

한국에서도 『단순한 기쁨』, 『피에르 신부의 유연』 등의 책으로 잘 알려진 피에르 신부가 지난 월요일(1월 22일) 새벽에 파리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그가 평생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헌신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노숙자의 문제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반향은 더 크다. 청년 시절에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을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회에 들어간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체포와 도주를 마다 않고 항독 저항 운동을 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스위스와 스페인으로 피난 시켰다. 해방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1949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엠마우스”를 창립했다. 그는 전과자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과 같이 나무와 함석으로 막사를 지어, 겨울에 주거지에서 쫓겨난 가족들이 들어와 살도록 했다. 또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엉마주리를 하여 마련한 밀천으로 제일 시급한 극빈자들을 도왔다. 그는 빈 집을 두고 사람들을 길에서 얼어 죽게 하며 값싼 복지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기주의에 대항하여 싸웠다.

지금은 “엠마우스” 공동체가 전 세계에 350여개가 되고, 그중 프랑스에 110개가 있다고 하지만, 그가 1954년에 라디오 뤼상부르 방송을 통해 호소한 “우애의 임시 구조대”의 필요성은 바로 오늘 전 세계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 바이다. 청취자들에게 5,000 장의 담요와 300개의 천막과 200개의 난로를 당장 빨리 갖다 달라고 요청한 그는, “고통 받는 당신이 누구이던 간에, 들어와서 자고 먹고 희망을 되찾으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는 프랑스에서 최근에 결실을 보게 된 “주거지를 가질 권리(DAL)”의 운동을 도왔고, 오늘도 집 없는 사람들은 천막에서 노숙을 하고 빈 집들을 점거하며 싸우고 있다. 피에르 신부는 그의 세계 선언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먼저 봉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나의 선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우선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내 빵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물질주의가 될 수 있지만, 남들의 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벌써 영적인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더 테레사와 같이, 오늘날처럼 삭막한 현대 세계에서 종교와 인종을 넘어서서 남들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실천하고 증언한 실제의 인물이다.

그의 장례식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이번 금요일에 치러지고, 그는 “엠마우스” 공동체의 묘지에 묻힌다고 한다. 이런 위인들이 사라져 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이런 금전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살고 싸우는 인물들이 이렇게 계셨다는 사실 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들의 뜻은 계속해서 지켜질 것인가? 우리는 다시 비인간적인 세계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인가? 어디서나 집세는 감당할 수 없이 끊임없이 오르고, 한국에서도 전세 값이 너무 엄청나게 올라 다시 더 번두리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이들이 많고, 재개발에 밀려 그나마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다반사인데, 일찍 집 문제에 대처한 피에르 신부가 놀랍다. 영원한 우리들의 문제 의식주가 위협 받을 때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조직과 사람들을 키워 놓은 그는 위대하다. 그는 이론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에 대한 그의 신념을 실천했다. “모든 참상과 그 많은 남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영원한 존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 받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가톨릭 신부임을 상기한다.

우리는 그를 본받아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세상의 부조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 토렌스 동 1반 이연행 세실리아